

# 한국형 도형심리유형의 가족복지적 접근 -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김 미 선\*

## 초 록

본 연구는 가족복지실천의 접근 방법으로 가족생활주기단계에 따라 발달과업수행을 위하여 한국형 도형심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최근 한국형 도형심리유형 척도가 개발되어 성격 측정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 도형심리유형 검사는 성격유형검사와 투사검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과정의 무의식적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자신의 모습과 미래의 기대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윤친성·김재진·김수자,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도형심리를 통해 가족생활주기별 자기확립과 사춘기를 둔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해결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도형심리유형의 검사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개인특성을 고려한 진로 및 직업 탐색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분석 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의사소통스킬을 향상하며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과거의 무의식적인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줌으로써 가족생활주기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한국형 도형심리유형, 가족복지, 가족생활주기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은 정신적으로 옹호된 유대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고 사회구성원을 성장시킨다. 건강하게 결속된 가족은 건강한 정신구조를 가지고 건강한 인간을 길러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는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산

\* 부천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E-mail: kms9642@bc.ac.kr)

투고일 : 2015년 5월 20일

수정일 : 2015년 5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5년 6월 2일

업화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가족구조의 형태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 현대사회의 가족은 높은 이혼율로 편부가족, 편모가족, 재혼가족을 양산하고 입양가족, 다문화가족, 무자녀가족, 조부모가족 등 눈에 띄게 변모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혼대비 이혼율이 11만 5천 5백 건으로 전년보다 2백건, 0.2% 증가하였다. 부부간 갈등의 원인은 주로 의사소통, 경제문제, 가치관의 차이, 외도문제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이혼율은 가족해체를 야기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가족은 빠르게 증가하는 이혼율, 가정폭력,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갈등, 청소년 비행, 노인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중 가족갈등은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적 불안, 자살충동, 사회적 부적응, 우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온다(홍기순, 2012).

악화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문제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가족복지적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현대사회 가족간의 문제는 심리적 체계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활용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에니어그램, 교류분석(TA), MBTI, Big Five, DISC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부부관계프로그램, 진로지도프로그램, 자아성장프로그램, 청소년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소집단 협력학습프로그램,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 집단정신간호프로그램, 리더십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인간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대부분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객관적 검사 도구를 사용한다. 하지만 객관적 검사는 흔히 특정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자기보고식답변을 하도록 함으로써 질문 문항에 대한 자각과 탐색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검사지를 활용한다. 이러한 검사지를 활용하면 개인이 지닌 경향성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신의 솔직함을 숨기고 사회적 가치에 준하는 답변을 한다면 정확한 검증이 어렵다.

최근 한국형 도형심리유형 척도가 개발되어 성격 진단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도형심리유형검사는 진단지를 통한 성격검사와 투사검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과정의 무의식적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자신의 모습과 미래의 기대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윤천성·김재진·김수자,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도형심리를 통해 가족생활주기별 자기확립과 사춘기를 둔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해결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도형심리에 대한 이해

#### 1) 도형심리의 유래와 역사

도형심리검사의 이론적 토대는 히포크라테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엠페도클레스(Empedocles, BC540-475)의 4원소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백승철, 2013; 추연홍, 2011). 그 이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322)가 이 이론을 지지하였고 4원소설에 맞는 각각의 성질을 찾아 분류하였다.

엠페도클레스(Empedocles, BC 493-430경)는 4원소 설을 주장하였으며, 이후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377)가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을 기본으로 사람의 혈액을 4가지로 분류하여 4체액설을 주장함으로써 인류 최초로 성격분류이론을 체계화 시켰다. 그리스 의사 갈렌(Galenus, 130-200 A.D)은 히포크라테스의 4체액설을 4대기질 이론인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로 수정발전 시켰다. 그는 4대기질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특징을 기술하여 오늘날의 유형이란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였다.

그 이후 칸트(Kant, 1724-1804)는 4가지 기질을 도형과 연관시켜 연구하였으며, 이것은 도형심리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형과 기질의 이론적 토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칸트는 인간의 기질을 혈액의 특성에 기인하는 심리적 경향성이라고 보았고, 혈액의 순환속도와 혈압은 개인이 흥분하는 속도에 영향을 주면서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 2) 도형의 상징적 의미

사람의 기질 및 성격을 4대기질과 연관시켜 연구한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면 동그라미는 다혈질, 세모는 담즙질, 네모는 점액질, 에스는 우울질을 상징하는 도형으로 보고 있다.

Cooper(1987)는 세계의 문화 상징을 연구하여 동그라미가 하늘을 상징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동그라미는 시작도 끝도 보이지 않는 무시간, 위도 아래도 보이지 않는 무공간을 나타내며 가장 자연스러운 모양이다. 동그라미는 바퀴나 공처럼 굴러다니는 물체들을 연상하게 되므로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향의 다혈질을 상징하였다(이윤기 역, 1994).

홍윤식(1992)에 따르면 세모는 방향을 제시하는 공격적인 이미지로 보고, 위로 상승하는 힘으로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주도적인 지도자 기질의 담즙질을 의미하였다.

Fincher(2000)는 네모는 땅을 상징하며, 한 면이 바닥에 모두 닿기 때문에 안정감과 균형감이 있고 견고한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네모의 의미는 협조적, 순응적이고 안정적인 점액질의 사람을 상징하는 도형으로 쓰여 졌다(김진숙 역, 2005).

Cooper(1987)는 에스 도형을 밖으로 뺀어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소용돌이 모양이라고 보았고, 힘의 증대와 감소, 탄생과 죽음, 성장과 확대 등을 상징한다고 하였다(이윤기 역, 1994). Georges(1988)은 뱀이나 용을 종종 나선형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동물의 신체적인 힘을 인간의 정신적 능력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도형은 신중하고 생각이 많은 우울질의 사람을 상징하게 되었다(김형진 역, 1997).

### 3) 도형의 일반적 특징

엔젤리스 아리엔(1998)은 각기 다른 사회에서 발견되는 상징이 지니는 의미와 일관성을 찾고자 각 상징들의 기원을 연구하였으며, 심리학, 문화인류학, 종교학 등을 연결하여 전 세계적으로 토착적인 영적 수행을 연구하였다.

그녀는 연구를 토대로 모든 문화와 예술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기본 도형인 원형, 나선형, 십자형, 삼각형, 사각형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도형들이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권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어떤 사람의 도형 선호도를 토대로 그 사람의 내적, 주관적 상태를 알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인 도형선호도 검사(Preferential Shapes Test)를 개발하였다.

아리엔은 도형 선호도 검사(Preferential Shapes Test)를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발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이 다섯 가지 도형 속에 구현된 우주적 변환과정과 자연 법칙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세계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섯 개의 도형은 내면심리 상태에 대한 외부 상징이며, 특정한 도형의 선택은 개인과 집단, 사회의 활동적인 가치나 과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도형 선호도 검사(PST)는 개인의 현재 가치와 세계관을 발견하여 개인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타인이 인지하는 가치 체계와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도형 선호도 검사시 도형 선택과 배열의 과정에서 개인이 인지하는 가장 강렬한 경험이 반영되므로 도형들이 어떻게 선택되고 배열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상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Arrien의 도형이론에 근거한 도형의 상징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상징은 조립한다는 의미를 가진 희랍어 ‘symbollein’에서 유래되었다. 명사인 ‘symbolon’은 표상, 신표, 증표 등의 의미가 있는데, 이는 헤어지는 두 사람이 서약의 표시로 나누어 가지고 반쪽짜리 동전을 뜻한다. 따라서 상징은 단지 도형이나 기호, 문학, 신화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합 또는 결합을 의미한다. Jaffe에 따르면 대자연 속에는 물론 인간이 만든 것, 숫자, 네모꼴, 세모꼴, 원과 같은 추상적인 형태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표 1〉 다섯 가지 도형유형별 특징

도형	특 징
원	보편적 상징으로서 전체성, 완전성, 동시성, 원초의 완전함을 의미한다. 형태적 상징은 자연스러운 모양, 원형과 구형, 자연, 태양이다. 정서적 상징은 전체성, 완전성, 동시성, 신성, 자기충족, 무한, 영원이다. 원은 무한과 신비를 의미한다.
삼각형	우주의 삼중성, 천·지·인, 아버지·어머니·자녀, 인간의 육·혼·영, 신비한 숫자인 3을 나타낸다. 정삼각형은 태양에 속하며, 생명, 불, 불꽃, 열을 나타내며 남성원리, 남근상, 영적 세계의 상징이다 삼각형의 상징은 꿈과 목표 그리고 비전이다. 삼각형은 자기발견과 계시의 주제를 띄며 비전에 대한 목표와 꿈을 의미한다.
사각형	사각형은 안정성의 상징이며 견고함과 안전의 상징이다. 서양 문화에서는 논리적 사고, 인간의 성취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상징 동양의 전통에서는 물질을 대변하고 물질 속에서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원칙을 상징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가 존재할 때 창조성, 책임감, 확실성이 존재한다.
십자형	십자형은 태고부터 우주적인 상징성을 가진다. 십자는 세계의 중심, 하늘과 땅이 통하는 우주축이라는 점에서 우주수, 산, 기둥, 사다리 등과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십자형은 원형적인 인간 - 수평과 수직으로 무한히 조화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인간을 상징한다. 수직선은 하늘, 영지, 적극성, 능동, 남성을, 수평선은 땅, 이성, 소극성, 수동, 여성을 나타낸다. 십자형은 관계와 통합의 상징으로, 결합과 종합, 균형의 과정이다.
나선형	성장과 진화의 상징이다. 연속을 의미하며, 질서정연함은 우리가 사는 우주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선형의 사람은 다양성과 새로움, 변화에도 강한 욕구를 가진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는 힘들어해도 그것을 시작하고 추진할 수는 있다.

출처: 이윤기 역(1994).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 2. 한국형 도형심리유형의 이해

### 1) 한국형 도형심리유형 상징



〈그림 1〉 한국형 도형심리유형 상징

한국형 도형심리유형 상징은 한국도형심리교육연구서에서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각 유형을 논리적이고 독창적으로 배열하여 만든 국내 유이의 상징체계이다. 유형 배열은 갈렌의 4대 기질 이론, 칸트의 감정과 행동요소의 강약, 동양의 사상체 유형과 두뇌성격의 분류를 상징 안에서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한 형태이다. 도형심리유형의 특징을 한국적 정서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별칭을 명명함으로써 한국형 상징으로서 큰 가치를 갖는다.

## 2) 한국형 도형심리유형의 특징

### 가. 동그라미(○) 유형

동그라미는 연결과 관계의 상징이다. 이들의 에너지는 주로 외부세계에 관심을 갖는 외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겨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며, 사교적인 성격이다. 이들은 편안하고 지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로 주변 사람들과 잘 사귀고 현재와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약간은 감정적이나 열정적이어서 흥분을 잘한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 하고,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가 충전된다. 상대의 실수도 잘 이해하려 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다. 또한 여행을 좋아한다.

그들의 단점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며, 전문성이 부족할 수가 있으며, 의지가 약한 단점이 있으며, 의지가 약하고, 신용을 잃기가 쉬우며, 자기중심적이고, 과장이 심하며 보고가 부정확하다. 겉으로는 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나 속으로는 겁이 많다. 귀가 얇아 남의 말을 잘 듣는다(윤천성·김재진·김수자, 2015).

### 나. 에스(S) 유형

에스는 정체성과 다양성의 상징이다. 에스형은 풍부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재다능하고 예술적 재능이 많다. 이들의 에너지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내면에 있는 내향성을 띤다. 자신을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에스형은 감정표현을 잘 하고 감정기복이 심하다.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며 쉽게 지루해 하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능력에서는 끊임없는 자극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들은 아이디어가 많아 집중하면 천재성을 발휘한다.

이들의 단점은 부정적인 논리력이 발달되어 있으며 비현실적이다. 무뚝뚝하며 비사교적이고 이기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이어서 가족들이 힘들어 한다. 자기변명을 잘하며 마음의 한이 깊이 내리는 타입이다. 자기감정에 잘 빠져든다(윤천성·김재진·김수자, 2015).

### 다. 세모(△) 유형

세모는 목표와 성장의 상징이다. 세모형은 일을 할 때 솔직하면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에너지는 주로 외부 세계에 관심을 두는 외향성이다. 이들은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며, 자립심이 강하고, 현실적이고 경쟁적이며 계산적이다. 항상 생산적인 생각을 하며, 무엇이 이익인가를 잘 안다. 항상 자신감에 넘쳐있으며, 의지가 강하며 자신의 결정을 선호하고,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한다.

이들의 장점은 능동적이고 의지가 강하며 기획력이 뛰어나 새로운 일 계획하는데 있어 추진력과 결단력이 빠른 독립경영자 타입이다.

이들의 단점은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해 경솔한 판단을 내리기 쉽고, 화를 잘 내서 동정

심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인정하여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윤천성·김재진·김수자, 2015).

라. 네모(口) 유형

네모는 안정과 공동체의 상징이다. 네모형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며 이들의 에너지는 주로 자신의 내면세계에 있어 내향성을 띠고 있다. 이들은 시작한 일에 대해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며, 신뢰감을 주고 침착하다. 네모형의 장점은 객관성과 진리를 추구하며, 실수가 적은 편이고, 준비성이 철저하며, 약속을 잘 지키려 한다. 이들은 조용하면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결코 일을 서두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기를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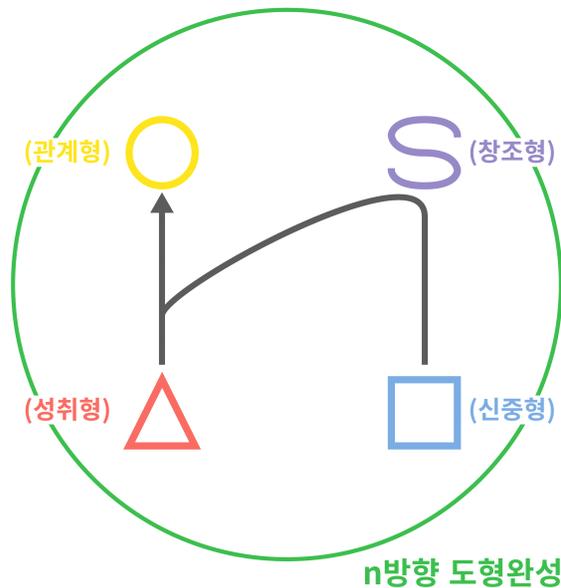
이들의 단점은 처음 시작하는 일에 대해 추진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사고가 유연하지 못해 자기 고집이 강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이런 특성으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윤천성·김재진·김수자, 2015).

<표 2> 한국형 도형심리 유형표

유형	동그라미형	에스형	세모형	네모형
별칭	관계형	창조형	성취형	신중형
기질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시제	현재	변화무쌍	미래	과거
자연	공기	흙	불	물
신체	가슴	머리	입	손/발
내면 근원	연결	정체성	목표	안정
추구 에너지	관계	다양성	성장	공동체
특징	친화력	준비성	능력	성실성
장점	긍정성	창의성	자신감	책임감
단점	과장	부정적	통제	우유부단
두뇌	우뇌 (감성, 이미지의 뇌)		좌뇌 (논리, 언어의 뇌)	

출처 :윤천성 외(2015). 한국형 도형심리 초급과정 워크북.

## 3) 한국형 도형심리의 성장도형



〈그림1〉 성장 도형(n방향 원리)

도형의 성장은 n방향 원리를 따른다. n방향 원리는 윤천성 교수(2015)에 의해 개발된 도형의 성장 방향의 원리로 네모형으로부터 동그라미형 방향으로 다시 동그라미형에서 네모형으로 큰 원형을 이루는 도형의 완성을 의미한다.

유형에 따라서 안정을 중시하는 네모형은 자기경계에서 머무르려 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탐구하는 에스형의 모습을 인식하여 자기를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에스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신의 다양한 모습에 빠져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선망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세모형의 모습을 인식하여 자신의 뚜렷한 모습에 집중이 요구된다. 세모형은 자신을 지나치게 내시우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경향성을 지닌다. 이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모두와 관계하는 동그라미형의 에너지를 인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동그라미형은 관계에 집중하느라 많은 사람들과 우유부단하게 관계하려는 경향성을 지니는데, 이들은 자신의 위치를 찾고 영역에 정착하는 네모형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같이 성장을 위해 네모형은 에스형으로, 에스형은 세모형으로, 세모형은 동그라미형으로, 동그라미형은 네모형으로의 순환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형의 완성을 통해 행복한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한국형 도형심리의 도형 성장방향이다(윤천성 외, 2015)

〈표 3〉 성장방향

유형	습관적 태도	성장 방향
네모형	자기경계에 머무는	자기를 탐색하는(에스형)
에스형	자기의 다양한 모습에 빠져있는	자신의 뚜렷한 모습의(세모형)
세모형	자신의 모습이 지나친	모두와 관계하는(동그라미형)
동그라미형	우유부단하게 관계하는	자신의 위치를 찾는(네모형)

출처: 윤천성 외(2015). 한국형 도형심리 초급과정 워크북.

### 3. 가족복지와 가족생활주기

#### 1) 가족복지

가족복지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정책적, 제도적, 기술적 서비스를 말한다. 가족복지는 전체로서의 가족은 물론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다.

김만두(1982)는 가족복지란 가족의 집단성을 확립하도록 하고 개개 가족 구성원의 인격의 성장과 발달을 원조하며 항상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적응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개 활동이라고 하였다.

Feldman과 Scherz(1968)는 가족복지란 전체로서의 가족은 물론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복지를 가족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주거나 가족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능 수행의 활성화와 생활의 질적 향상 등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동원한 서비스라고 보았다.

#### 2) 가족생활주기

가족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족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로서 발달론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신승범, 2013).

가족의 이해는 발달론적 접근에서 가족을 마치 한 개인이 출생과 여러 단계의 성장과정을 거쳐 발달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가족도 탄생과 성장 그리고 소멸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 발달한다고 보았다(박태영, 2003).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다양한 측면의 성장을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하는 인간발달이론들의 영향을 받았고, 이를 기초하여 가족생활주기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의 발달을 단계화하고 각 단계에 수행해야 할 발달과제 (developmental task)를 제시한다(조정문·전상희, 2007).

모든 가정은 자연적인 생활주기(Life Cycle)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란 전체 주기를 통해 주어질 시기에 요구되는 활동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전형적인 가족이 생애의 일정기간을 보내는 동안 거치게 되는 특정한 단계의 연속이다(박준옥, 1993).

Haley(1980)는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가 출생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가 유년기를 맞고, 청소년기를 거쳐 결혼하고 독립하고, 부부가 늙어가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족생활주기라고 하였다,

가족생활주기는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고 비슷한 위기에 직면하며 비슷한 발달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가족들을 어떤 범주로 구분한다(장운옥, 1992). 이는 각 단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제 문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가족생활주기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내에서 나타나는 변화들, 예를 들어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른 역할기대, 구성원들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그에 맞는 발달 과업 수행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춘다.

가족이라는 조직은 구성원 개개인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조직으로서, 가족의 발달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해 시작되고, 이로부터 자녀출생, 자녀 성장, 퇴직,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정형화된 단계에 따라 발달한다. 가족생활주기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학자들에 따라 3단계에서 24단계까지 다양하게 구분되며 연구목적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김정하, 1993).

듀발(Duvall)은 장자의 연령에 기초하여 1단계는 신혼부부 가족(부부확립기, 자녀 출생 전), 2단계는 자녀출산 및 영아기 가족(첫아이 출산~30개월), 3단계는 유아기 가족(첫아이 30개월~6세), 4단계는 아동기 가족(첫아이 6세~13세), 5단계는 사춘기 가족(첫아이 13세~20세), 6단계는 독립기 가족(청아이가 독립할 때부터 마지막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7단계는 중년기 가족(부부만이 남은 가족~ 은퇴기까지), 8단계는 노년기 가족(은퇴 후~ 사망)로 구분하였다.

Carter & McGoldrick(1997)은 가족생활주기가 결혼을 단계의 시작으로 하여 한 배우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전통적 묘사와는 다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작용하는 정서적 단위의 가족을 고려하여 주기를 결혼전기부터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청년들의 결혼 전 가족과 함께 하는 기초적인 과업의 성취여부가 새로운 생활주기의 성공적인 단계와 어떻게, 언제 누구와 결혼하는지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Carter & McGoldrick, 정문자 역, 2000).

Carter & McGoldrick(1997)은 가족생활주기를 1단계는 독립된 젊은 성인단계, 2단계는 신혼부부단계, 3단계는 어린 자녀를 둔 단계, 4단계는 사춘기 자녀를 둔 단계, 5단계는 자녀가 집을 떠나는 단계, 6단계는 노년기 단계로 구분하였다.

Carter & McGoldrick(1997)의 가족생활주기 6단계에 의거하여 각 단계의 특징, 과업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4〉 가족생활주기단계

단계	변천과정의 주요원칙	발달과업
독립된 젊은 성인 단계 (결혼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관계의 분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가족과의 관계로부터 분화</li> <li>• 밀접한 이성관계의 발전 (동료관계)</li> <li>• 자기과업 확립</li> </ul>
신혼부부 단계 (결혼 적령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가족체계에 대한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체계형성</li> <li>• 지위, 역할, 기대변화에 대한 적응</li> <li>• 배우자의 가족, 친구와의 관계제휴</li> <li>• 부부관계에서 새로운 행동 유형 발전</li> </ul>
어린 자녀를 둔 단계 (자녀아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가족구성원 수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를 포함한 부부체계의 재구성</li> <li>• 부모로서의 역할수행</li> <li>• 부모 또는 조부모의 역할을 포함하는 확대가족관계 회복</li> </ul>
사춘기 자녀를 둔 단계 (자녀청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가족경계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춘기 자녀가 가족체계의 안팎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부모-자녀관계가 이행</li> <li>• 중년부부문제나 직업 등의 발달과제에 대한 재인식</li> <li>• 노년세대에 대한 준비시작</li> </ul>
자녀가 집을 떠나는 단계 (자녀독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통성 있게 가족성원의 증감에 적응</li> <li>• 가장 긴 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만의 체계로 재조명</li> <li>• 성장한 자녀와의 관계를 성인과의 관계로 이행</li> <li>• 조부모가 되는 동시에 손 자녀와의 관계형성</li> <li>• 자신의 노부모 죽음에 대처</li> </ul>
노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변화에 따른 역할에 적응</li> <li>• 사회 은퇴에 적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가족관계 또는 사회적인 역할탐색</li> <li>• 다음 세대가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li> <li>• 연장자로서의 지혜와 경험을 근거로 정신적 여유를 가짐</li> <li>• 배우자, 형제, 동료의 죽음에 대처하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li> <li>• 삶을 되돌아보고 통합함</li> </ul>

출처: Carter & McGoldrick, 정문자 역(2000)

### Ⅲ.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형심리의 적용

본 연구는 가족복지실천의 접근방법으로 가족생활주기별로 한국형 도형심리유형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성장 발달과 가족발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 상호작용도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족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을 알게 되고, 가족의 지속적인 발달 과정을 설명, 예측, 적용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정현숙·유계숙, 2004). 가족생활주기의 개념은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고 있으며,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부부간 결혼만족도, 소비생활패턴, 주거형태선호, 여가활동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연구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의 발달과 함께 가족에게 요구되는 발달과업이 있다. 가족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각각의 단계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지위와 역할, 그리고 발달 과업을 부여한다. 정현숙과 유계숙(2004)은 각각의 단계에서 주어지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재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수행해야할 발달과업이라고 하였다.

모든 가족은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적응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적응의 문제는 가족생활주기의 붕괴와 가족의 역기능과 같은 가족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도 발달과업을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한 가족복지 구현을 추구하고자 한국형 도형심리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기 확립과 또래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확대가족관계(부부, 부모-자녀, 조부모)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중년 및 노부부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가족생활주기 1단계의 주요과업은 직업선택과 결혼선택, 부모와 자녀관계의 분화이다. 한국형도형심리유형검사(진단지를 통한 성격검사와 투사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 본질과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나와 다른 다양한 개인의 성격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직업선택과 결혼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기 확립과 또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족생활주기 2단계의 주요과업은 부부의 정체감 수립, 배우자와의 상호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체계 수립, 확대가족이나 친구들이 배우자를 수용하는 것 등이다. 이 단계에서 부부는 자신과 배우자의 성격을 이해하고 스스로 도형의 성장 방향인 n방향 원리에 따라 자기를 인식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한국형 도형심리검사에서 투사검사를 통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과거의 무의식적인 상처를 인식하고 현재 자신의 모습과 미래의 기대에 대한 탐색을 함으로써 배우자와의 관계형성과 확대가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가족생활주기 3단계의 주요 발달과업은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다. 부부는 부모의 역할수행을 위해 양육태도의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어떤 양육태도를 취할지 대화를 통해 결정하고, n방향 원리에 따라 자기를 인식한다면 성숙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4단계부터 5단계에서는 사춘기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형성과 중년 및 노부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나를 내세우지 말고 도형심리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미래의 기대에 대한 탐색을 함으로써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배우자에게 사춘기 자녀에게 그리고 성장한 자녀와 손자손녀에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형심리를 통해 사춘기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는 사춘기자녀를 이해하며 성장한 자녀를 성인과의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6단계의 주요 발달과업은 연장자로서의 지혜와 경험을 근거로 정신적 여유를 갖고 자신의 죽음 준비 및 인생의 통합이다. 한국형 도형심리유형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탐색해보고 마지막에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알게 됨으로써 삶을 되돌아보고 통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형도형심리유형의 진단지를 통한 성격검사와 투사검사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개인특성을 고려한 진로 및 직업 탐색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분석을 통한 의사소통스킬을 향상하며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과거의 무의식적인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줌으로써 가족생활주기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IV.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자는 가족복지실천의 접근 방법으로 가족생활주기단계에 따라 발달과업수행을 위하여 한국형 도형심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물론 제시하기만 하고 실제로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연대의 기초단위인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가족구성원들의 고통은 크고 그 고통은 개인에 머물지 않고 가족 전체, 이웃, 지역사회에 고통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가족복지적 측면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현대가족은 빠르게 증가하는 이혼율, 가정폭력, 가족갈등, 청소년 비행, 노인문제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가족이 해체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족의 위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성과 잠재력이 극대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형 도형심리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형 도형심리는 성격의 경향성을 탐색하고 연령, 학력, 능력, 그림그리기 개인차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고, 투사검사를 통해 개인의 과거경험과 미래의 기대, 무의식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다. 이는 가족생활주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의사소통,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향상, 자녀교육, 고부관계, 평온한 노년기 등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추후 한국형 도형심리를 활용하여 이혼가족을 돕는 교육, 재혼 가족의 적응을 돕는 교육,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돕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족복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김정하(199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관광지 선택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역(2005).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 김형진 역(1997). 기호의 언어: 정교한 상징의 세계, 서울: 시공사.
- 박준옥(199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사역할분담 유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영(2003).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 백승철(2013). 도형상담 입문서: 도형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탐색과 상담 활용법, 서울: 심상코.
- 신승범(2013).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생활교육의 기독교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43, 307-329.
- 윤천성·김미선(2015). 인간행동과 관계. 서울: 무역경영사
- 윤천성 외(2015). 한국형 도형심리 초급과정 워크북, 서울: 한국도형심리교육연구소.
- 윤천성 외(2015). 한국형 도형심리 중급과정 워크북, 서울: 한국도형심리교육연구소.
- 이윤기 역(1994).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진, 서울: 까치.
- 장윤옥(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제약 지각이 역할갈등과 시간제약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숙·유계숙(2004). 가족관계, 서울: 신정.
- 조정문·장상희(2007). 가족 사회학, 서울: 아카넷.
- 추연홍(2011). 도형상담 해석의 원리, 서울: 미래교육연구원.
- 홍기순(2012). 부부싸움에 대한 자녀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별 반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윤식(1992). 만다라, 서울: 대원사.
- Arrien, Angeles. (1998). Signs of Life: The Five Universal Shapes and How to Use Them, New York: Jeremy P, Tarcher/ Putnam.

Carter, B., & McGoldrick, M., 정문자 역(2000). 가족생활주기와 치료적 개입,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Carter, B., & McGoldrick, M., 정문자 역(1997).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ABSTRACT

### Family Welfare Approach to Korean Geometry Psychology Type -Focused on Family Life Cycle-

Kim, Mi-Sun \*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ucheon University  
(E-mail: kms9642@bc.ac.kr)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into how Korean geometry psychology can be applied as an approach to family welfare practices for developmental tasks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family life cycle stages.

The scale of Korean geometry psychology types was recently developed to use as an instrument for measuring personality. The test of Korean geometry psychology types helps family members understand themselves, form a positive human relationship with others, recognize and heal unconscious wounds in the process their life, and explore the expectation of their present and future figure through the personality type and projection tests(Yoon Cheon-sung·Kim Jae-jin·Kim Soo-ja, 2015).

So this study came up with ways to seek the establishment of self-identity, an amicable settlement of the relationship with adolescent children, 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 and stress between family members by family life cycle through Korean geometry psychology.

The test of Korean geometry psychology types can understand themselves and others, and analyze their career-job search and their communication styles consider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Consequently, it gives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peace of mind to them so that they can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and recognize and heal their past unconscious wounds, which i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forming their developmental tasks in the stage of family life cycle.

Key Words : Korean Geometry Psychology Type, Family Welfare, Family Life Cycle